

송주호의 테마 클래식 4 -혁명

글.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EBS 기술기획부 선임

지난달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있었죠. 탄핵 인용이라는 4.19에 비견될 수 있는 이 사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법치에 따라 이루어낸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이 한 차원 상승되었음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렇다 보니 4월을 맞아 4.19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은 ‘혁명’이라는 주제로 클래식 음악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 발바스트르 : 마르세예즈 변주곡

프랑스의 낭만화가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 1798~1863)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1830)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림일 것입니다. 프랑스 시민 혁명을 그린 이 그림은 서양화에서 ‘혁명’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죠. 시체를 밟고 전진하는 사람들은 소년, 신사,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은 권총, 소총, 칼 등 다양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주인공은 삼색기를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이지만, 그들은 여신이 보이지 않는 듯 다양한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홀린 듯한 표정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어쩌면 자유의 여신을 숭배하는, 바카날레와 같은 일종의 제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혁명은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천지개벽 수준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왕실에서 일하던 음악가들은 갑자기 밥벌이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시민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혁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지요. 프랑스 왕실에서 일하던 클로드 발바스트르(Claude

Balbastre : 1724~1799)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당시 혁명가였던 ‘마르세예즈’로 변주곡을 만들어 ‘마르세예즈 행진곡과 사-이라 노래’(Marche des Marseillois et l’Air ça-ira)라는 곡의 앞에 배치했죠. 이 곡으로 그는 자신이 혁명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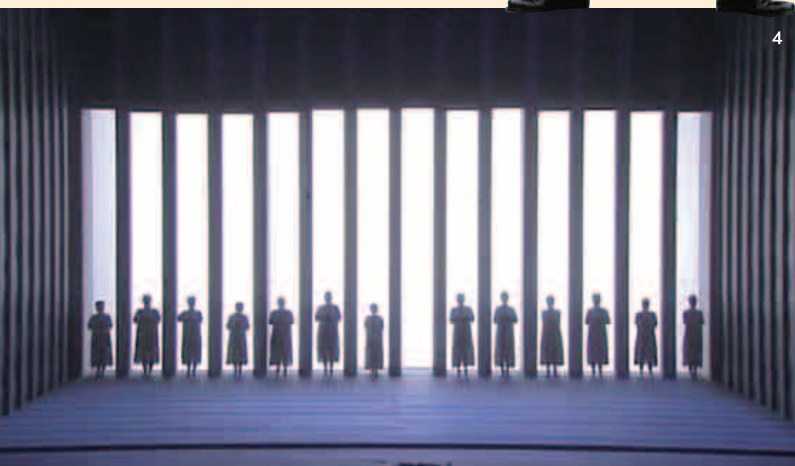
마르세예즈는 1792년 클로드 드 리슬(Claude Joseph Rouget de Lisle : 1760~1836)이라는 사람이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자, 조국의 자식들아! 영광의 날이 왔도다. 우리에게 맞서 폭정의 피 묻은 깃발이 나부끼네. 들리는가, 들판에서 이 성난 병사들이 울부짖는 소리인가? 그들이 우리의 코앞까지 왔다, 우리 자식과 아내의 목을 베기 위해!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진용을 갖추고 진군하자, 진군하자! 더러운 피로 우리의 밭고랑을 적시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르세예즈가 현재 프랑스 국가이며 현재도 이 가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발바스트르의 변주곡을 하프시코드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프시코드를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건반을 눌러 연주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현대 피아노와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악기는 피아노처럼 현을 망치로 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건반과 연결된 작은 돌기가 현을 뜯는 방식으로 소리를 냅니다. 손으로 뜯는 하프를 높이고 손대신 건반과 기계적으로 연결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프시코드’, 즉 화음을 연주하는 하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첼발로’(이탈리아, 독일), ‘클라브생’(프랑스), ‘버지날’(영국) 등은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진 악기들입니다.

추천 영상 : youtu.be/n_lSZJBxQMY

> 폴랭크 : 갈멜회 수녀들의 대화 (1956)

프랑스 시민혁명은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1794년 7월 17일 수녀들이 처형당한 사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시민혁명세력은 갈멜회가 가톨릭 신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콩피예뉴(Compiègne)에 있던 갈멜회 수도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했죠. 하지만 수도원은 이를 거부했고, 그곳의 수녀들은 반혁명 세력으로 간주되어 단두대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 잔인한 사건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프랑시스 폴랭크(Francis Jean Marcel Poulenc : 1899~1963)에 의해 오페라 소재가 되었습니다. 귀족의 딸이었던 블랑슈는 갈멜회 수녀가 된



1 발바스트르의 '마르세예즈 변주곡'
2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들라크루아) 3 프랑시스 폴렝크
4 폴렝크의 '갈멜회 수녀들의 대화'

니다. 좌충우돌하며 수도원 생활을 하던 중 프랑스 혁명으로 위기가 닥치자 모두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하고 도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것을 맹세하며 다시 모이게 되고 장렬하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칩거하고 있던 블랑슈도 뒤늦게 나타나 단두대로 향합니다.

두 시간 반 이상 길이를 가진 프랑스어 오페라다 보니 감상이 쉽지는 않은데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기도문 '살베 레지나'(Salve Regina)를 부르며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마지막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보통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은 갈등을 해소하고 침착하게 마무리되는 반면에, '갈멜회 수녀들의 대화'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죠. 열여섯 번이나 울리는 단두대의 신경질적인 쇠소리에 소름이 끼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추천 영상 : youtu.be/5zIVNSJNLno

> 쇼팽 : 12개의 피아노 연습곡 1권, Op. 10 중 12번 '혁명' (1828~32)

앞에서 말씀드린 화가 들라크루아는 이외에도 수많은 명화들을 남겼는데, 음악 서적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보다 많이 수록되는 그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레데리크 쇼팽'(1838)이죠. 이 그림은 오른쪽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측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지만 집중해서 보고 있다기보다는 무엇인가에 심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인가란 바로 음악이죠. 사실 모차르트의 만년의 자화상처럼 이 그림도 미완성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구도를 잡는 스케치를 해 두었는데, 여기에는 오른쪽에 피아노를 치는 쇼팽이 있고, 왼쪽에는 쇼팽 뒤에서 쇼팽의 연주를 감상하는 쇼팽의 연인 조르주 상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 쇼팽의 그림은 파리의 루브르에, 상드의 그림은 코펜하겐의 오르드루프고르에 떨어져 보관되어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건우와 직녀보다도 더 서글픈 일이죠.

프레데리크 쇼팽(Frédéric François Chopin : 1810~1849)의 아름다운 피아노곡 중에는 '혁명'이라는 제목의 곡이 하나 있습니다. 20세 전후로 작곡한 '12개의 연습곡 1권' 중 마지막 곡이죠. 들라크루아의 그림이 프랑스 혁명을 그린 것이라면, 이 곡은 폴란드 혁명을 그린 것입니다. 쇼팽은 만 20세였던 1830년에 음악의 도시 빈으로 진출하기로 결심하고 10월 11일에 바르샤바에서 고향 연주회를 갖습니다. 이 연주회에서 유명한 '피아노 협

주곡 1번'이 초연되었습니다. 그런데 빈으로 떠나자마자 11월에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의 압제에 항거하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봉기는 이듬해까지 이어졌지만 러시아의 잔인한 무력 진압으로 끝나게 됩니다. 쇼팽은 외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매우 괴롭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쇼팽은 자신의 심정을 ‘혁명 연습곡’에 담았습니다. 폭풍우와 같이 휘몰아치는 서주에 이어 격정적인 멜로디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왼손은 여전히 피아노 건반을 재빠르게 오르내리면 폭풍의 격량을 표현합니다. 뒷부분은 희생자를 애도하듯 사그라지지만, 혁명 정신을 여전하다는 듯 강한 화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연습곡’이란 본래 기량 증진을 위해 연습을 목적으로 만든 곡입니다. 작품성보다는 목적에 충실하다 보니 서정미가 결여되어 있고 음악적인 깊이가 부족하여 감상에 적합하지 않죠. 하지만 쇼팽은 ‘연습곡 1권’을 통해 연습곡이라는 장르를 연주회용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무시무시한 기교를 잔뜩 집어넣고도 서정성을 갖추고 음악적 완성도도 높은 것이죠. 쇼팽은 총 27곡의 피아노

연습곡을 썼고, 이후 리스트를 비롯한 유수한 작곡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괴물 같은 콘서트용 연습곡을 만들었습니다.

추천 영상은 피아노의 신동이자 영원한 천재 에프게니 키신(Evgeny Kissin)의 연주를 골랐습니다. 열정적인 그의 연주와 모습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추천 영상 : youtu.be/c2i_QmgAJn0

> J.S. 바흐 : 칸타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BWV80 (1731)

인류 역사에서 혁명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죠. 1517년 10월 31일 아우구스티누스회의 수도사이면서 신학교수인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 1483~1546)가 ‘면죄부에 관한 95개 조 논제’라는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문전에 게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종교 개혁은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갔죠. 스위스의 츠빙글리와 칼뱅, 보헤미아의 후스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후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세우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으며, 직접 코랄



5



6



7



8

- 5 들라크루아가 그린 쇼팽
- 6 쇼팽의 ‘혁명 연습곡’
- 7 바흐의 ‘종교개혁 칸타타’
- 8 마르틴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9 멘델스존의 교향곡
5번 '종교개혁'
10 펠릭스 멘델스존

을 작곡하여 불렀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 중 가장 유명한 노래는 우리나라의 찬송가에도 수록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이 곡은 이후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노래로 인식되었는데, 개신교 교회에서 일했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 1685~1750)는 이 곡을 주제로 하여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칸타타를 작곡했습니다.

바흐의 칸타타는 약 250곡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종교음악 작곡의 의무가 있었던 라이프치히 시절에 집중되어있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종교적인 내용이고요, 특히 교회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흐의 칸타타에 대해서는 지난 1월호에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칸타타'는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더욱 재미있는 감상이 될 것입니다.

추천 영상 : youtu.be/cNZvQbvf5gA

> 멘델스존 : 교향곡 5번 라장조, Op. 107 '종교개혁' (1830)

독일 최고의 음악 천재를 꼽는다면 단연 펠릭스 멘델스존(Jakob Ludwig Felix Mendelssohn Bartholdy : 1809~1847)이 될 것입니다. 6세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9세에 첫 공개 연주회를 가졌으며, 12~14세에 무려 12곡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그의 성은 유대인의 성 '멘델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도 멘델스존은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촌의 성인 '바르톨디'로 개명한 것이죠. 하지만 멘델스존은 딱딱한 이미지의 '바르톨디'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래서 그는 계속 '멘델스존'이라는 본래 성으로 서명했고, 오늘날에도 멘델스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12개의 습작 교향곡을 완성한 후 15세에 '교향곡 1번'이라는 정식 번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번 '종교개혁' (1830), 2번 '찬양'(1840), 4번 '이탈리아'(1833), 3번 '스코틀랜드'(1829~42)의 순서로 다섯 곡을 완성했습니다. 이 중 '종교개혁 교향곡'은 두 번째로 완성된 교향곡이지만 웬일인지 번호는 가장 나중인 5번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본래 이 곡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1830년 6월 25일에 열린 종교개혁 30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은 그해 1월에 곡을 완성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가 병이 나는 바람에 곡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이후에는 예정된 연주 여행을 떠나면서 작곡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해 8월 말이 되어서야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행사는 이미 끝난 뒤였죠. 그래서 이 곡은 1832년 여름에 수정을 한 후 그해 말이 되어서야 초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멘델스존은 이후 이 곡은 다시 연주하지 않았고, 출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곡가가 세상을 떠나고 20여 년이 지난 후인 1868년에 다시 연주가 되었고, 출판도 뒤늦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미 멘델스존의 교향곡은 4번까지 출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5번이라는 번호를 붙인 것이죠.

이 곡에는 마지막 4악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선율이 제시되고 다양한 형태로 변주됩니다. 오늘날 자주 연주되는 곡은 아니지만 위엄 있는 4악장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바흐의 곡과 같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선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추천 영상 : youtu.be/otcmrQAwD8